

## 공효진 스릴러 '도어락' 본격 촬영...올해중 개봉

등록 2018.01.10 13:20:34



【서울=뉴시스】손정빈 기자 = 영화 '도어락'(감독 이권)이 공효진·김예원·김성오 등 출연진을 완성하고 본격 촬영에 들어갔다고 메가박스가 10일 밝혔다.

'도어락'은 원룸에 혼자 사는 여자의 집에 낯선 사람의 침입 흔적과 함께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공효진은 혼자 사는 여자 '경민'을 연기한다. 김예원은 경민의 직장 동료이자 조력자인 '효주'를, 김성오는 살인 사건 범인을 쫓는 '이 형사'를 맡았다.

공효진은 지난 7일 첫 촬영을 마치고, "현실적인 소재로 관객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스릴러라는 점에서 큰 도전"이라며 "그만큼 떨리고 기대된다. '도어락'을 통해 단순한 여성 피해자가 아닌 인간으로서 사건을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어락'은 올해 중 개봉할 예정이다.

jb@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